

엘리야 - 넘버 투

예언적 특성

Jeff Pippenger

2023-09-27

이전 글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하나의 상징으로 확인했다. 윌리엄 밀러의 규칙에 따르면 '상징'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으로서의 엘리야는 엘리야와 모세의 이중 상징을 이루는 한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엘리야와 모세의 이중 상징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며, 그 이중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리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는 몇 가지 예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예언적 특성을 입증해 줄 세 명의 주요 증인이 있다. 그 증인들은 선지자 엘리야, 세레 요한, 그리고 윌리엄 밀러이며, 영감은 이들을 서로 대체 가능한 상징으로 지목한다.

수천 명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어나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 예수의 선구자 요한처럼, 이 엄숙한 메시지를 전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뿌리에 대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을 느꼈다. 그들의 증언은 교회들을 각성시키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울려 퍼지자,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이들이 그 치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후퇴를 깨닫고, 통회하는 쓰라린 눈물과 깊은 심령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라"라는 외침을 함께 전했다. 초기 저술, 233.

엘리야, 세레 요한,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그들의 사역을 인도하고 규정한 특별한 영을 부여받았다. 그들의 증언은 교회들을 "일깨우고 강력하게 감화시키며" 그 교회들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아합의 시대이든, 세레 요한의 때이든, 윌리엄 밀러의 때이든, 그들이 상대하던 교회들은 모두 라오디게아적 영적 맹목에 빠져 있었고, 그 어두움이 너무 깊고 짙었기에 메시지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는" 것만큼이나 직설적일 필요가 있었다. 그 메시지에는 은혜의 기간의 종결을 알리는 선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레 요한의 경우 그것은 곧 닥칠 "진노"에 대한 경고였다. 윌리엄 밀러가 선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메시지도 다가올 진노에 대한 경고였다.

요한의 음성은 나팔처럼 높이 울려 퍼졌다. 그의 사명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보이며,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이라'(이사야 58:1)였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학식은 없었다. 하나님과 자연이 그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앞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옛 선지자들처럼 담대히 목소리를 높여 타락한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할 사람이 필요했다. 선택된 메시지, 2권, 148쪽.

엘리야는 자신의 세대에게 그날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명령했고, 그 세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알을 선택한 것과 같다.

바로 지금처럼 신실한 경고와 책망, 그리고 면밀하고 곤은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짧음을 알고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귀에 즐거운 허탄한 이야기들로 세상을 범람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에게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이 해 주어지기를 좋아합니다. 죄와 불의가 가증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밀려오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더 굳건하고 결연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역사가 필요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매함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파멸이 되고 말 그 무기력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이 어둠의 권세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분명히 옳은 편에 서 있거나 분명히 그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홀느니라.' 증언, 3권, 327쪽.

요한은 그의 역사 속의 '타락한 민족'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밀러주의자들은 결국 그들의 역사 속의 타락한 민족을 바벨론의 딸들이라고 규정했다. 엘리야이든 요한이든 밀러이든, 셋 중 누구도 신학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그분이 포근한 구름에 둘러싸이셨을 때 그분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됨이며 진리이고, 과거에 마음들을 새롭게 하였듯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도 똑같이 확실하게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31).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 아래, 복음이 그 순수함 그대로 전파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생수의 강물은 그 흐름을 따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모든 들에서, 사람들이 쟁기질하던 밭에서, 또 마음을 크게 사로잡는 더 혼한 상업적 생업에서 불러 나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의 산들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처럼 일하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재하고 계심을 드러낼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진리는 분명하고 조금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언어로 선포될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질서 있는 삶과 경건한 행실로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는 데에 능력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진리에 부여하신 확실한 적용을 분명히 제시하는 일에서도 능력이 더해질 것이다.

진리를 알고 가르치던 이들이 사람의 지혜에 기대어 길을 벗어나, 미혹된 마음들에게 자기들 식의 꾸며낸 이야기라는 요리를 내놓을 때, 한때 복음 전도 사업에 종사했으나 식당, 식료품점, 그리고 다른 상업 분야의 경영으로 끌려 나간 이들은 이제야말로

대열에 합류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여 성경의 진리, 곧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지금 신적 임명을 받은 일꾼들을 크게 부르고 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산들에게 이르시되,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실 것이다. 폴슨 컬렉션, 73, 74.

엘리야, 요한, 밀러는 "더 평범한" "직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이전에 진리를 가르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인간의 이해로 돌아서서, 미혹된 마음들에게 자기들만의 우화라는 접시를 나누어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성경 예언의 "확실한 적용"을 제시할 것이다. 화이트 자매는 그 본문에서 두 차례 "산"을 "어려움의 산"으로 지목했다. 이들의 사역에는 "모든 산"을 낮추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겸손한 형편에서 쟁기를 잡던 자리에서 부름받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이 일은, 당시 신학자들이 내어놓는 인간 우화의 접시들과 대조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방법론을 식별하는 일을 대표한다.

세레 요한의 사역과 말세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무관심에서 깨우는 이들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동일하다. 그의 사역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역의 예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요한이 그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 준비의 사역 가운데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곧게 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니, 역사는 반복될 것이며 다시 한 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Southern Watchman, 1905년 3월 21일.

이사야가 지적인 세 명의 개혁자들이 지닌 특징은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거친 곳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다. 골짜기를 높이고 산을 낮추며 굽은 것을 곧게 하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하여 예비된 주의 길은 옛 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곧아지고, 거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40:3-5.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이 세레 요한에게 오실 엘리야가 당신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이어서 이사야서의 구절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는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고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그가 말하였다. "아니다." "그 선지자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야 하니, 너는 누구냐? 너 자신에 대해 무엇이러 말하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복음 1:19-23.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밀러가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인도한 방법론을 가리킨다. 모든

'산'은 낮아져야 했는데, 이는 성경 예언의 산들이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워 보이는 진리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북방 왕이 정복하려 하는 다니엘 11장 45절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루살렘의 문자적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식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언적으로 영적인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규정한다. 아마겟돈, 곧 '므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그 산을 설명하려면, 문자적 므깃도로 가야 한다. 어떤 것의 시작이 그 끝을 보여 준다는 원칙을 적용할 때, 어렵다고 여겨지는 예언적 난제들은 해소된다.

이사야가 제시하고 요한이 언급하며 밀러가 정립한 그 방법론은 모든 골짜기를 높인다. 그것이 이사야서 22장의 "환상의 골짜기"이든, 에스겔서의 "죽은 뼈들의 골짜기"이든, 요엘서의 "여호사밧 골짜기"이든, 밀러주의 역사에서 '놀라운 수를 헤아리시는 분' 팔모니로, 혹은 우리의 역사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놀라운 언어학자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초한 그 방법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골짜기"들에 표상된 예언적 진리들을 높이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라오디게아의 제사장 집단이 독이 뱀 꾸며낸 이야기들을 떠받치기 위해 사용해 온 관습과 전통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엘리야의 사역은 신학자들과 제사장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에 맞서는 올바른 성경적 방법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된다. 그 일은 배운 제사장들과 신학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세 증인의 예언적 특징 속에는 장차 올 엘리야가 남자일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도 들어 있다.

그 관찰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재림주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어낸 이야기를 옹호하려 하면서, 화이트 자매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사람에 관해 미래 시제로 말한 한 구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들 나름의 지어낸 설명을 덧붙이고 화이트 자매가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우긴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자가 있다. [부록 참조.]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너는 너무 열심이 지나치다. 너는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내가 네 메시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말해 주겠다.'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대로 진리를 말하겠다. 이제 말하노니, 너희가 계속해서 흠을 잡고 불화의 영을 품는다면,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일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숨이 코에 있을 뿐인 사람을 의지하는 일을 그치라. 그를 무엇으로 셈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력한 영혼을 예수께 매달아야 한다. 산에 샘이 있는데 골짜기의 샘에서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낮은 시냇물을 떠나고, 더 높은 샘으로 나아가자.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진리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탐구하고, 성경을 성경과 대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광산 속으로 진리의 갱도를 깊이 파고들라. 너희 자신과 너희의 견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너희의 선입견을 버리며, 하늘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하라.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75, 476쪽.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누군가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은 화이트 여사의 생애와 사역 이후에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나타날 어떤 개인에게 해당된다고 일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 왔다. "Let heaven Guide"라는 제목의 이 글을 이루는 세 개의 단락은 1890년 1월 29일 아침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엘렌 화이트가 한 연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글이 1890년 2월 18일자 Review and Herald에 게재되었을 때는 "How to meet a Controverted Point of Doctrine"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이 글에서 발췌되어 이 책의 몇몇 페이지를 주로 보완하는 데 사용된 다른 인용문들은 23, 104, 111, 119, 158, 278, 386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Selected Messages 1:406-416에 전체가 재수록되었으며, 그중 "Let Heaven Guide"라는 발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412쪽과 413쪽에 실려 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미니애폴리스 회의가 있는 지 1년 남짓 지난 뒤 배틀크릭에 모인 한 무리에게 한 이 진술에서 엘렌 화이트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말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사역에 비판적으로 변해 있었다. 이 책 475쪽에 실린 단락의 바로 앞 단락에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든 차이가 녹아 없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내게 빛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주께서 내가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기별에 관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내신 이들에게 닿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 버릴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오실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본 모든 능한 일들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복이 있으시도다.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매, 그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곧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37-40).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지의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말라기 4:5). 누군가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것이며,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나치게 열성적이오,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소.'" — 선택된 메시지, 1권, 412.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녀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에서도 분명해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진리를 말하겠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의 부록.

엘렌 화이트가 자신의 시대의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다루어야 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장차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않는다. 재림교회 내에서 그녀가 사용한 성경 적용 방법을 공격했던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녀가 "당신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세상의 끝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권능을 받는 한 무리의 운동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녀가 엘리야의 능력이 장차 나타날 것을 예언하던 그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그 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그녀가 생각했다고 암시할 정당한 방법은 없다. 라오디게아 재림교 신학자들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보내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엘렌 화이트 자매가 "자신의 경험"에 "언급"한 것이라고 그들의 신도들에게 믿게 하려 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라기 4:5.

상징으로서 엘리야의 예언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습과 전통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성직 제도가 만들어 낸 허구에 맞서는 성경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가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것이 그 길이니, 그 길로 행하라)은 부패한 성직 제도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성경적 방법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엘리야, 세레 요한, 밀러라는 세 증인과, 그 당시로서는 미래에 있을 엘리야의 나타남에 대한 화이트 자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것이다. 팔모니와 알파와 오메가의 방법론이 올바르게 이해될 때,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성경적 규칙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곧 그분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인식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5.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적용해야 할 방법론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그분이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위대한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져 모세가 오경에 기록한 계명들은 그 무오한 사본이었다.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된 이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지닌 신성하고 불변하는 성격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전에 결코 그러하지 못했던 것처럼 구주께서 하신 말씀의 힘을 보았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18.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므로, '하늘에서 신실한 증인처럼' 영원히 존속해야 한다. 어느 한 계명도 폐지되지 않았고, 일점일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그의 모든 계명은 확실하다. 그것들은 영원무궁토록 굳게 서 있다.' 시편 119:89; 111:7, 8. 대쟁투, 434.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옮겨 놓은 불변의 기록인 것처럼, 예언 해석의 원칙들도 그분의 품성을 옮겨 놓은 기록이다.

우리는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원칙—최고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믿음의 근거로 삼을 이유도, 사안의 진실을 가려낼 충분한 증거도 없이 믿는 이들이 많다. 자신의 선입견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 제시되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원인과 결과를 따라 추론하지 않으며, 그들의 믿음에는 진정한 토대가 없다. 그리고 시련의 때가 오면 자신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현재의 불완전한 성경 지식으로 만족하며 이것이 자신의 구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치명적인 기만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분별하고 진리인 양 내세워진 모든 전통과 미신을 정죄할 수 있도록 성경적 논증으로 철저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이들이 많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을 부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자신의 사상을 들여왔다. 현재의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옛 경계표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지근하고 무관심하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의 참된 덕을 자기들의 경험 속에 엮어 넣어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게으르고 부주의하다. 성경의 구절들에 관해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고 무엇을 믿는지 확고하지 않은 이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신적 진리를 부지런히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자신들이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다를 바 없을 만큼 사역에 대한 열심도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다. 그들은 자기 영혼에 그 골수와 기름짐을 취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의의 태양의 광선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의 약속들과 예언들은 구속의 신적 계획 위에 영광의 맑은 광선을 비추지만, 이러한 장엄한 진리들은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1888년 자료, 403쪽.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이다. 이 본문은 우리가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규범—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규범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규범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권위가 주신 그 규범은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아의 또 다른 특징은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엘리아는 이전의 선택된 백성이 제쳐지고 동시에 새로운 백성이 택함을 받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대표한다. 그 역사는, 이전의 불순한 선택된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정결한 제물로 표현되는 백성을 빚어내는 정화 과정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찾는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리요?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니라. 그는 은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금과 은 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지나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1-4.

세레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셔서 자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길을 예비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있었던 성전 정결은 말라기 3장의 성취였다. 요한은 언약의 사자가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길을 예비한 사자였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에 들어가셨다. 신적 임재의 거처로 세워진 그 성전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원 전부터 빛나고 거룩한 스랍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였다. 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신성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하늘의 뜻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성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다시 그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 있는 숭고한 운명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건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리지 않았다. 부정한 매매의 소란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감각적 정욕과 불경건한 생각의 존재로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분은 죄의 더러움, 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 악한 습관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르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리요? 그는 정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정결케 하리라.' 말라기 3:1-3. 시대의 열망, 161.

세레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셔서 그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길을 예비한 사자였고,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갑자기 오시도록 동일한 예비의 일을 이루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임하심, 다니엘 7장 13절에 나타난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나아오심,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자신의 성전에 임하심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며, 이는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혼인에 신랑이 들어가는 것으로도 표상된다. 대쟁투, 426.

요한과 밀러는 말라기를 통해 표현된,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정결을 예표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4:8).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그녀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녀는 제4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탄이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한 거짓말—영혼의 자연적 불멸—을 되풀이해 왔다. 이와 동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리며,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15:9).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신성 모독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분의 사역 마지막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하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는 그 성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14:8).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요한계시록 18:4, 5)." 선택된 기별, 제2권, 118쪽.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있었던 두 번의 성전 정화와 밀러파 역사에서 있었던 두 번의 성전 정화는 말라기 3장의 성취였으며, 또한 2001년 9월 11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기 위해 내려온 때에 시작된 두 번의 성전 정화를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올 엘리야 선지자가 엘렌 화잇이었다고 주장하는 재림주의의 라오디게아적 신학자들이 내놓는 허탄한 이야기를 반박한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올 때 일어나는 성전 정화는 엘렌 화잇이 잠든 지 86년 후에 시작되었다.

세레 요한과 그의 제자들, 밀러와 밀러파, 그리고 퓨처 포 아메리카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여 그 성전을 신성모독적인 더럽힘에서 정결하게 하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자들을 대표한다.

상징으로서의 엘리야는 한 사람을 대표한다. 그는 성직자 신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의 사역은 최고 권위가 준 규칙들, 곧 바른 성경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의 사역은 현재 라오디게아적 성직자들의 우화와 관습과 전통의 방법론에 맞서 있다. 그는 지나쳐진 선민의 남은 자들로부터 새로운 선택된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정결케 하는 과정을 위한 길을 준비한다. 그 정결의 과정은 갑작스러움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 규정하신 사역과 일을 상징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를 통해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매,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 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36.